

# 인도발(發) 델타 변이, 광주·전남 휩쓸다

### 7월 감염자 50% 20~30대...돌과 감염도 급증

### “휴가철·방학 수도권서 고향 찾아...이동 자제”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활동력이 높은 20~30대의 감염률이 높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정 기준 광주지역 변이바이러스는 총 60명으로 영국발 알파형이 31명, 인도발 델타형이 29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첫 델타 변이 13명 감염이 확인된 이후 한달여 만에 16명이 추가돼 총 29명(해의 6

명·지역감염 23명)으로 늘었다.

전남은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총 69명으로 알파형 29명, 델타형 4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56명이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됐지만 일주일 사이 13명이 추가됐다.

광주의 경우 확진자가 지속해 나오고 있는 서울 마포구·경기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가 델타형으로 확인됐으며 이날까지 74명이다.

전남에서는 여수 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발 집단 감염자 25명이 델타형으로 확인됐다.

또 목포, 완도, 강진, 장흥, 영암 등의 확진자 25명 중 17명이 델타 변이로 파악됐다.

또 최근 감염자 중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감염자 358명 중 20대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69명, 40대 47명, 10대·50대 46명, 60대 이상 25명, 10대미만 15명 순이다.

20~30대를 합치면 179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는 총 64명으로, 1차 접종 후 감염이 56명, 2차 접종 후 8명

이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뒤 감염된 ‘돌과 감염’자도 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수도권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20~30대들이 델타형에 감염된 뒤 고향인 광주와 전남지역을 찾아 부모와 친구를 만나면서 추가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타지역에서 활동했던 방문자는 고향집을 방문하기 전에 검사를 먼저 받고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백신 2차 접종 후 돌과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아 주변 감염 위험도는 낮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세월호 기억의 공간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이전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기억공간 내 물품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옮겼다. (공동취재사진)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기억공간 내 물품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옮겼다. (공동취재사진)

## 전남지역 물류창고 상당수 소방법 위반...19곳 적발

### 22곳 점검...19곳 위반사항 적발

전남지역 대형 물류창고 상당수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소방 특별점검을 한 결과

19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이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계기로 유사 화재 예방을 위해 전남지역 대형 물류창고 22곳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19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92건, 기관 통보 5건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위반, 방화문 용도 장애, 소방펌프 작동 불량, 경보설비 음량 미달 등이다. 김정환기자

## 근로정신대시민모임

### 미쓰비시, 재향고 반발

### “사법절차 이용 시간끌지 말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2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사법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재향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29일 판결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에 대한 배상결정도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6건, 상표권 2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이 기각결정에도 재향고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80~90대 고령인 점을 노려 사법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은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선욱기자

## 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통장단 간담회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지난 26일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통장단 등 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와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작동원리, 돌봄이웃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 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내와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관련교육 시간도 가졌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소방, 펜션 및 야영장 화재예방 현장 지도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7일 무안군 여름철 펜션 및 야영장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휴가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펜션 등에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및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계인 소방안전 컨설팅 △통로 등 계단 내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야영장, 펜션 등 휴양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지도 등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완도해경, 태풍 내습 대비 사전 안전점검·사고예방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이번주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여름철 태풍 내습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용부두와 경비함정 등을 대상으로 부서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올해 태풍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20여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평년 수준인 2~3개의 강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완도해경은 ▲ 전용부두 육전함 등 시설물 안전성 이상유무 ▲ 육상창고 침수방지 조치 여부 ▲ 급유시설 침수방지 조치 등 안전확보 여부 ▲ 경비함정 항해·기관·구조장비 등 정상작동 등 상태 여부 ▲ 예비 계류색·웬다준비상태 등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완도해경에서는 경비함정 근무자를 대상으로 태풍내습으로 인한 과거 사고사례 설명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완도=이민혁기자

## 광양소방, 여름 휴가철 대비 펜션 등 화재예방대책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민박, 펜션, 관광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족단위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펜션 등 숙박시설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의식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주요 소방시설 상시작동 여부 확인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여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 및 화재 시 초기 대응요령 교육 ▲육내·외 화기취급(캠프파이어, 음식조리) 시 화재위험성 안내 ▲민박 시설(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지도 ▲여름철 냉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 및 실외기 화재주의 예방홍보 등을 통한 초기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했다.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펜션, 야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나올 우려가 높다”며 “시민·방문객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